

전남도, 독립문학관 건립·문학박람회 추진한다

노벨상 계기 세계적 문향 도약 4대 프로젝트·3대 독서캠페인 문학사 편찬·문학상 신설 검토 “문학·예술·관광 발전모델 구축”

전남도가 한강 작가의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세계적인 문향(文鄉)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4대 프로젝트와 3대 독서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한국 문학사에 이정표를 세운 한강 작가의 쾌거 이후 문학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다. 노벨상 수상을 발판 삼아

전남의 문학적 가치와 자산을 세계에 알리자는 취지로 △전남 문학박람회 개최 △도립 문학관 건립 △지역 문학사 편찬 △전남 문학상 신설 등이 주된 내용이다.

전남도는 올해부터 전남 문학박람회를 정기적으로 열 예정이다. 박람회는 지역 출신 작가를 비롯해 국내·외 문학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협력하는 장으로 기획된다. 문학 포럼, 작가 강연, 작품전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이 문학을 더욱 가까이에서 즐기고 향유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도립문학관 건립도 전남 문학진흥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전남 출신 작가들의 작

품과 기록물을 보존·전시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소년과 문학 애호가들에게 지역 문학의 가치를 알릴 계획이다.

또 지역 문학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편찬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전남 문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문학사에서 전남이 차지하는 위치와 기여를 재조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역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신진 작가 발굴을 통해 문학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전남문학상’ 신설도 검토하고 있다. 지역 문학의 위상을 높이고 전남 작가들에게 창작 의욕을 고취하는 동시에

지역문학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4대 프로젝트와 함께 독서문화 확산 정책도 추진된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행복한 출산을 응원하는 첫 책 선물’ 사업은 전남에서 태어나는 8000여 신생아 가정에게 책 꾸러미를 제공해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는 취지의 프로그램으로, 독서를 생활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의 책 도민 함께 읽기’ ‘독서왕 선발대회’ 등을 통해 도민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고 책 읽는 전남 조성도 추진된다.

전남도는 예로부터 문향으로 불리며 윤선도, 정철, 김인후 등 조선 문인을 비롯

해 김영랑, 조정래, 이청준, 김남주, 한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학거장을 배출한 고장이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이러한 전통이 현대적으로 빛을 발하는 계기가 됐다. 도는 이를 발판으로 ‘글로벌 문학 허브’로 도약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문학·예술·관광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정체성을 강화해 전 세계 독자에게 전남의 문학적 가치를 알릴 계획”이라며 “한강 작가의 수상이 남긴 울림은 전남이 세계적 문학 중심지로 나아가는 길에 큰 영감을 줬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nyun.oh@jnilbo.com

광주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길라잡이’ 발간

전국 첫 무료 배포...품질향상 기대

광주시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지침서인 ‘건설공사 품질관리 길라잡이’를 발간, 무료 배포한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업무지침서는 전국 최초로 광주시가 구성한 ‘민관합동 건설공사 품질혁신기획단 전문가들과 2024년 광주지역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기여한 우수 현장 기술자(감리단장·현장소장·품질실장), 공무원들이 함께 논의한 결과물이다.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 공무원들과 발주자·감리자·시공자 등 건설공사 관계자들이 실무형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현장점검요령, 질의응답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특히 건설공사 단계별로 품질관리 주요 확인 사항과 관련 법령에 따른 벌칙 규정, 관련 양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시하고 있으며, 부실공사와 가장 밀접한 콘크리트 분야에 대한 현장점검 요령들을 사진으로 알기 쉽게 구성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법령 등 품질관리 일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 계획 수립 방법 △주요 지적사항과 현장점검요령 △품질관리비 산출 기준 및 예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사용법 △품질시험 및 검사 기준 등을 담고 있다.

또, 품질관리 불량 등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사고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주택법에서 각각 ‘감리자와 공사감독자의 공사 중지 권한’을 별도로 정리했다.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별 공통언어를 함께 수록했다.

광주시는 이번 업무지침서를 분청 및 사업소 기술직 공무원들에게 배부했으며, 소규모 건축공사를 담당하는 5개 자치구 인·허가기관 공무원들을 직접 찾아 업무지침서 활용 방법을 안내했다. 광주시도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건축사회, 대한토목학회 광주전남지회 등 관련 학회·협회에도 정보무늬(QR)를 활용해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 가입자 55만명 돌파

할인가맹점도 550곳 넘어

전남도는 지역 소멸위기 극복, 농특산물 판매 촉진,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운영한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의 가입자가 55만을 넘어섰고, 할인가맹점도 550개소를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사랑에 서포터즈 가입자에게는 지역 관광지, 숙박, 음식점, 전통시장 등 할인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남 사랑도민증이 발급된다.

지난해 전남도는 진해 군항제, 여의도 벚꽃축제, 대구 차맥페스티벌 등 국내 대표축제 현장 홍보와 함께 산악연맹 등 스포츠단체와 업무협약을 하는 등 서포터즈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데 구슬땀을 흘렸다.

또 22개 시·군 협조와 상인연합회, 숙박업협회 등 7개 협회와의 협약 등을 통해 연초 230여 개던 할인가맹점 개수를 550

개까지 늘리며 서포터즈가 받는 혜택도 대폭 확대했다.

도는 올해도 사랑에 서포터즈 모집, 홍보 등 양적 성장과 함께 서비스와 혜택 확대 등 질적 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서포터즈 가입, 할인가맹점 정보 제공, 도내 축제·행사 안내, 도정 소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편의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또 민간플랫폼 등을 통해 SNS 활용 비중이 높고 소비 주도층인 MZ 세대, 수도권 여성을 겨냥한 홍보와 이벤트를 진행하고 시·군, 향우회 청년층 등 네트워크 측면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서포터즈 모집과 할인가맹점 확대에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서포터즈 가입 및 할인가맹점 정보는 공식 누리집(https://namdo2.jeon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김영록 도지사 청정전남 으뜸마을 현장방문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0일 곡성 죽곡면 삼태마을을 방문, 마을주민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2024년 마을공동체 최우수마을로 선정된 것에 대해 축하의 말을 전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시,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신청부터 월 1만4000원 지급 한번 신청하면 24세까지 지속

광주시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신청을 받는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은 9·24세(2016년 12월31일~2000년 1월1일생)의 여성청소년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금액이 1인당 월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연 최대 16만8000원)으로 인상돼 개인의 필요와 선호도에 맞춰 생리용품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우처는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한번 신청하면 자격에 변동이 없는 한 해마다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이 24세까지 지속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 또는 주양육자)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복지로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야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카드사별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유통점에서 생리용품 구입이 가능하다.

단 바우처는 해당 연도에만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 금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므로 반드시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올해 청년기업 인증제 본격 시행

18~45세 기업 대표 대상

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청년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올해 청년기업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청년기업 인증제도는 지역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청년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전남도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마련됐다.

청년기업 인증은 전남에 소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기준에 의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18~45세 청년(2007~1979년생)이 대표인 기업 중에 국세와 지방세 체납이 없고,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기업이면 인증 받을 수 있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이며, 인증이 만료되면 재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기간 중 대표자의 나이가 45세를 초과하더라도 인증 효력은 유지된다.

청년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는 융자 한도 상향(시설자금 20억·운영자금 5억), 이자지원 우대(최대 2.9%), 국내외 박람회 참가와 흡소핑, 인터넷 오픈마켓 입점 지원, 전남도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신청 시 가점, 도 주관 행사 우선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전남도는 청년기업 지원부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추가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청년기업의 성장을 촉진, 지역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도록 도울 방침이다.

오지현 기자

진일보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